

특구 지정·UN의 날 기념 행사 ‘다채’ 국제평화기념사업회, 평화음악회·시·사진전 등 열어

UN평화 봉사단 발대도

10월 들어 남구지역 곳곳에서는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과 UN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공동 이사장 김정훈 국회의원·박맹연 부경대 총장)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초청 ‘평화음악회’를 열었다.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을 기념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교류행사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국회의원은 “평화음악회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남구를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가별 음악인을 초청해 음악을 통해 다국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매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 다문화가정 자녀 악기 증정식에 이어 열린 2부 순서에서는 손지현 부산MBC아나운서의 사회로 음악회가 진행됐다.

음악회에는 부산YMCA 네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양을 곡을 시작으로 메조소프라노 안송미, 테너 김지호 등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클래식과 가곡, 팝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업회는 또 지난 24일 오전 10시 UN기념공원에서 UN평화봉사단 발대식을 가져 국제평화 봉사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부경대의 외국인 유학생, UN서포터즈 학생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250여명은 이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열매들에게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어 행사 장소를 도르트 수로와 대연수목원 내 생태하천으로 옮겨 물고기 방류 행사를 가졌다.

봉사단은 앞으로 UN기념공원 참배와 주변 청소, 참전국 봉사활동과 교류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업회는 이밖에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과 공동으로 ‘평화 시·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에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남구문화원 수강생 작품 40여점이 전시됐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는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세계 유일의 성지인 UN기념공원과 연계한 국제평화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사업회는 앞으로 자유수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문화·전시사업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UN평화기념관과 Peace Center 건립·운영 등 UN평화문화특구사업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넓은 실내공간 확보·최신 영화상영

독감예방접종 편하게 받으세요

남구보건소는 지난 12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예년과 달리 접종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독감예방 우선접종 대상자가 노인층과 장애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예방접종장소를 장애인의 이용과 기상상태에 구애받지 않도록 구청 실내 1층 대강당으로 준비했다. 간이자도 충분히 마련해 불편함을 최소화 했다.

이와 함께 접종장소에 최신 영화상영과 음료수 제공 등으로 접종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덜어줬다.

김정수(73·대연6동)씨는 “지난해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물리면서 장사진을 이뤄 너무나 힘들었는데 구에서 넓은 실내공간으로 옮겨 접종을 하면서 훨씬 수월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12일부터 무료접종대상자(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노인·장애인1~3급·국가유공자 본인 등)를 대상으로 동별 접종을 실시해 21일 현재 모두 1만3,500여명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철 구청장 건설사업장 찾아

현황 살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당부



구수영로 확장공사장을 찾은 이종철 구청장이 주민들과 공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종철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을 찾아 현황을 살피며 공사관계자들에게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구수영로 확장공사장. 총사업비 48억원을 들여 500m 구간의 도로 폭을 5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장을 찾은 이 구청장은 장대대 건설과정으로부터 우수박스 일부가 사유지 내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철근노출, 재료분리 현상이 발견돼 보수·보강 및 사유지내 구조물 일부 시설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연5동 뚝골시장~동진교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과 대연1동 11동 지하(동해방 일일) 도로개설공사장을 차례대로 방문해 주민 편의와 공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를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연4동 문화회관 진입도로 확장공사장을 찾은 이 구청장은 주민과 의 대화를 통해 공사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구청장은 백운초 체육공원 조성 공사장을 둘러보고 현장 소장에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등을 물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종철 구청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관내 건설사업장 현황을 살피기 위해 공사장을 찾게 됐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공동체학교 내용 담은 ‘함께 걷는 길’ 출간

문현4동 옛 배재고등학교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 학교를 소재로 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제의 책은 ‘함께 걷는 길’ - ‘내 이름은 이라나예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어요’(김서정 글·한성옥 그림/웅진주니어)로 다문화가정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 한성옥씨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충분한 보살핌과 격려를 받으며 그들 없이 자라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독서문화기행 참가자 모집

새마을문고남구지부는 내달 13일 놀토,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기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과 부모 8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7천원이다. 25일부터 선착순 마감.

지부는 참가자들과 함께 경남 통영에 위치한 청마문화관과 이순신공원, 박경리문학관, 수산과학관을 차례대로 방문해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633-7642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남구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이번 교육은 컴퓨터활용과 예쁜 문서 만들기 등 5개 과정에 모두 2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인터넷(www.bsnamgu.go.kr)과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607-4306, 4301

구는 지난 22일부터 유료접종대상자(65세~69세노인·기초생활1-2급수급자)를 대상으로 약품 소진시까지 우선 접종을 실시했다.

유료접종비는 8천원이며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독감예방 접종 시 일시에 많은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오랜 시간 서서 기다리거나 지루해하고 불편해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영화상영 등 불거리 제공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방사선 촬영업무 일시중단
11.8~12.3일까지 장비 설치

남구보건소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설치와 방사선실 내부공사를 위해 11.8~12.3일까지 방사선 촬영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수첩과 성인병 검진, 건강진단서·일반 건강진단서, 결핵검진 업무가 중단된다.

업무는 12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며 “공사 기간동안 가까운 수검구·진구·동구보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을

남구보건소는 신생아를 낳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올해 3명 가구기준 소득 168만 9천원 이하)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가사지원을 돕는다.

서비스는 신생아 1명 기준으로 12일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6만4천2천원이다. 단 전국가구평균소득 40%를 넘거나 5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액이 9만2천원이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합시다 내달부터 황령산 등산로 등 13개소 폐쇄

남구는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산로 13개소 17km구간이 폐쇄되며 남구 전체 산림의 53%에 해당하는 501ha가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폐쇄되는 등산로는 황령산 신원아파트~바람고개 구간과 장자산 경동아파트~백산아파트, 우암산 기린아파트~체육공원 정상에 이르는

산명	구간
황령산	동남아파트~경성대 뒤편
	동천고 입구~조림지
	신원아파트~중앙약수터~바람고개
	삼익아파트~남수목대~인창약수터~봉수대
	구)동랑골프장~인창약수터~봉수대
경동아파트 뒤편	조림지
	경동메르빌아파트~인창약수터
봉오리산	용문종교 뒤편~체육공원
장자산	백운초 옆~송신소 입구
	용화사~약수터
	경동아파트~백산아파트
	대평아파트~체육시설물
우암산	기린아파트 뒤편~체육공원 정상

■등산로 폐쇄구역

서울 G20 정상회의가 내달 11일 열립니다

- 일시: 2010. 11. 11(목)~11. 12(금)
- 참가규모: 10,000명(19개국 국가원수 및 EU 대표)
- 내용: 세계 경제 위기 대처방안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
 - ▷ G20 정상회의는 서민·국민생활과 직결: 20~30조원 경제적 가치
 - ▷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세계 경제위기의 극복
 - ▷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 제고의 기회 제공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다문화가족 문화행사 남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진숙)는 지난달 24일 부산박물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어울림 문화행사를 가졌다.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 부산남구문화예술회(회장 송석복)는 지난 7일부터 문화회관 대전실에서 2010남구 문화예술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들의 작품 200여점이 출품됐다.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 남구는 지난 12일 김만2동 주민센터에서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지적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민원종합상담실을 열었다.



이웃사랑 실천의 날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우유와 함께하는 이웃사랑실천의 날 행사를 갖고 홀로노인과 남구 푸드마켓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남구청년연합회(회장 김석주)는 지난 17일 백운초 체육공원에서 회원과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체육대회를 열고 회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했다.



문화체험활동 지원 남구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지난 9일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 별빛도마에서 포도따기 체험활동을 열고 문화체험활동 지원에 나섰다.



자연생태그린스쿨 운영 남구와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회장 윤현수)는 지난 5일 UN조각공원에서 동천초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그린스쿨을 열었다.



청해부대 환영식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4일 부대 내 연병장에서 소말리아 해역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향한 청해부대 부대원들을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남구漫評

채규중



“함께 가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체험 한마당

남구보건소 할렐루야 치과 등 관내 의료기관 후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보건소(소장 조봉수)가 이들의 건강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8일 부경대에서 이어 오는 27일과 내달 5일 부산외대와 경성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체험 행사를 갖는다.

보건소가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외국인 유학생의 90%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타지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행사에 앞서 관내 할렐

루야 치과 등 병·의원과 부산알고올 상담센터, 대한결핵협회 등 12개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마쳤다.

행사기간 동안 보건소는 금연·절주, 영양·비만·접종 코너를 운영하고 할렐루야 치과는 구강검사와 치과 진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남부지사는

체성분 검사와 운동 상담을 해준다. 고려병원은 혈압·혈당 검사 및 의료상담을 통해 질병예방에 나서며 김스키부과는 피부 전문상담을 맡는다. 이밖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와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 남구정신보건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12일은 ‘승용차 없는 날’

부산광역시,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부산광역시와 부산 16개 구·군은 내달 1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이 이날 하루 동안 폐쇄된다.

‘승용차 없는 날’은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대체한 것으로 시민들의 대

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을 꾀하기 위해 운영된다.

한편 해마다 9월22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는 지난 97년 프랑스 라로셰에서 교통량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도심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운동으로 처음 시작됐다.